

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문 숙 · 김 현 주*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상징주의(Symbolism)는 1880년대 파리를 중심으로 등장하여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시작된 19세기의 예술사조로서 객관적인 것, 과학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을 강조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을 상징적인 기법을 통해 표현하려는 예술양식이다.

복식에 나타난 상징주의는 현실자각으로부터 실제와 기존 관념에 대한 거부 및 기계화된 비자연적 세계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에서 시도되었고, 자신들의 위신과 경제력을 과시하려는 부르주아에 대한 반향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신세계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복식에 있어서 상징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상징주의 예술과 복식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근거로 Robert R. Delevoy의 상징주의 예술의 유형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근대(1880~1910년대)와 현대(1990년대)복식에 표현된 상징주의의 유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19세기 말 발생 이후 현대에 이르러 복식에 표현된 상징주의의 변화된 특성과 표현의 유사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적 조사방법을 통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를 근거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분석법을 도입하여 객관적 자료분석과 해석을 제시하였다.

Robert R. Delevoy는 상징주의 예술의 제 범주를 신비성, 에로티시즘, 장식성으로 조명하였으며, 이 3가지 특성을 근거로 복식에서의 상징주의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근대(1880년대~1910년대)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신비성은 과거신비에 대한 동경과 현실에 대한 부정으로 과거 그리스에 대한 환상과 동양에 대한 관심을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이국적 테마로 전개하였다. 특히 앰파이어 스타일과 같이 순수성 지향에 기반을 두고 기존의 장식적, 수공예적 요소를 포함한 인위적 실루엣을 거부하였고, 터어키편의 하렘 팬츠, 미나레 스타일 등 동양풍의 실루엣은 유럽의 조형미에 동양적 조형미를 도입하여 기존의 서구적 전통미를 파괴하였다.

둘째, 에로티시즘은 기계문명의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아르누보 예술양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아우어글래스, S-커브 실루엣이 주로 나타나며, 여기에 여성성을 가미하여 허리, 가슴, 힙, 어깨 등 신체의 특정부분을 과장함으로써 인체의 곡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S-커브 스타일과 함께 큐래스 바디스, 포인티드 웨이스트, 포취드 스타일이 나타나고 있으며, 벨룬소매, 고어스커트, 벨스커트는 과장된 형태로 보여진다.

셋째, 장식성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거부 등을 인간 정신의 주관적인 세계를 본질로 하여 아르누보의 섬세하고 장식적인 곡선의 S-커브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며 러플, 레이스, 프린지, 페시멘트리 등의 디테일과 자연대상물의 유동적 곡선 형태로 표현한 문양에서 그 특

징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1990년대)복식에 표현된 상징주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비성은 세기말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물질문명의 한계로 인해 개인의 영적 삶을 통한 정신적 위안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종교나 정신철학을 통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현대복식에서는 특히 종교, 동양사상, 신화를 주제로 전개되어 종교像이나 신화에 대한 심리적 효과를 평면형태나 자연형상물의 상징 등을 개방된 형태로 표현하고 구조적 실루엣 및 인체형상을 무시한 기하학적 실루엣으로 다양한 내면의 상징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또한 색채를 통한 표현의식과 연속적인 선을 사용한 장식적 표현이 특징이다.

둘째, 에로티시즘은 인간의 성적욕구 및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면서 현대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과 상업화된 성표현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표현방법은 인간본능에 내재된 성적 욕구 및 순수한 인체미물 노출과 은폐, 시스루, 부분적인 것을 위치 변경하거나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조화, 인체의 각 부분을 강조 또는 확대, 과장, 변용과 전위 등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장식성은 보편적 자연성과 미적 세계 등을 순수성을 본질로 하거나 기존가치체계에 대한 반항 등의 내적 의미를 섬세하고 감각적인 곡선의 형태 및 추상형태의 표현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색채, 문양, 과잉장식, 풀라주 및 사물을 통한 은유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복식의 상징주의적 특성은 사회적 맥락을 포괄하는 구상에서 등장한 복식으로 기능적이면서도 상징적인 방법적 사고의 이원화를 통한 실용적 측면과 시대정신의 반영물로서의 복식이라는 이념적 측면을 모두 갖게 되며, 특히 현대복식은 새로운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감성을 지배하는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요소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보다 진실되고 분석적인 태도를 갖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상징주의적 특성은 지속될 것이며 그 영향력은 21세기 디자인의 목표를 형상화시키는 주된 근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